메리츠 금융 Daily

2021. 4. 30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News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2년내 모든 차주에 DSR 40% 적용 — 매일경제

금융당국이 모든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3 단계에 걸쳐 시행하기로 결정.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
금융위는 1단계와 병행해 차주 단위 DSR 40% 도입을 2022년 7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까지 적용하고, 마지막 3단계에는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규제 받는다.

은행권 "가계부채방안, 또 가수요 생길 듯" — 뉴시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차주에 대한 DSR 40%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올해 7월 이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고객들이 몰려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신용대출 DSR 만기산정기준이 현행 10년이지만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축소되기 때문. 만기가 짧을수록 원리금 부담이 커져 DSR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하반기 은행 완충자본 도입...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도 건전성 규제 —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 기한 내 0~2.5% 상당의 추가자본을 적립할 의무가 생긴다.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부터 한도성 여신등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잭팟인데 신경쓰이네”… 은행권, 삼성 수천억 신용대출 두고 눈치 — 조선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이 남긴 유산에 따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시중은행과 신용대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의 신용도와 안정적 소득 고려하면 리스크 적은 우량 대출이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여론 반응 등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반응 있다.

제2의 쿠팡 키우자…거래소, 'K-유니콘' 상장 문턱 확 낮춘다 — 비즈니스워치

한국거래소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 증시 상장을 나서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시총 5000억원 이상 중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실적 대신 미래의 성장성을 토대로 심사. 기술평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NH투증, 옵티머스 100% 배상 결론 못내…금감원에 기한연장 요청 — 뉴스1

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옵티머스펀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
100% 배상을 해야한다면 판매사인 자사만 홀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분담을 하는 '다자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벌써 2조'…보험사, 올해도 자본확충 안간힘 — 아시아경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2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재무건전성이 하락한 곳들도 많아 하반기에도 자본확충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장에서는 2023년 IFRS17와 K-ICS 시행으로 선제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져 공동재보험 등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 데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은성수 "보험 모집채널 제도개선 노력할 것" — 머니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보험사를 찾아 "대면 · 전화 · 디지털 모집채널이 상호결합 · 보완 ·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특별방역주간' 시행에 따라 이날 NH농협생명 본사와 콜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설계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